

PRESSBOOK

Aya TAKANO

CEO&

November 2015



CEO & November 2015

Gallery



아야타카노, 국내 첫 개인전

서구 컬렉터·젊은 애호가에 인기많은 만화적 캐릭터

Editor 정윤운 Cooperation Jokyun Gallery(www.jokyungallery.com)

일본의 대표적인 현대 회화 작가이자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아야 타카노의 개인전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리고 있다. 이번에 선보인 작품들은 조현회방 부산 전시를 위해 특별히 제작되었으며, 세로 2m, 가로 6m의 대형 회화 작품 1점과 지난해 부산을 방문했을 때 얻었던 영감을 토대로 작업한 신작 17여점이 전시됐다.

아야 타카노는 일본의 팝아티스트 무라카미 다카시의 첫 어시스턴트였으며, 일본의 작가집단 '가이 카이 키키' 스튜디오와 프랑스 엠마뉴엘 레로맹 갤러리 전속작가로, 유럽에서는 2002년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세계적인 컬렉터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녀는 일본의 망가와 SF 소설적 세계관, 그리고 미망의 예로비즘과 변형된 자포니즘을 주축으로 작업한다.

그녀의 작품은 주로 소녀를 모티브로 하며 밝고 깜찍한 일러스트에 예로틱하면서도 그로테스크한 요소가 혼재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전후 일본의 문화적 풍요로움과 그로 인해 발생한 다양성과 복잡함을 미학으로 통합하는 하나의 정보자리 과정으로 보여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76년 일본 사이타마에서 태어난 아야 타카노는 2002년 타마대학 미술학과를 졸업했다. 어떤 시

1 May All Things Dissolve in the Ocean of Bliss, 2014, Oil on canvas, 230.2x650.2cm(3 panels)
2 The Galaxy Inside, 2015, Oil on canvas, 180x227.8cm
3 The Ocean Inside 2015 Oil on canvas, 170x400cm

The Adventure Inside ©2015 Aya Takano/Kaikai Kiki Co., Ltd. All Rights Reserved.



절 대부분의 시간을 아버지 서재에서 책을 읽으며 보낸 그녀는 작품에서 드러보이는 특이한 형상의 동물, 도시와 지형들은 아버지의 서재에 주를 이루고 있던 자연과학 및 SF소설에서 영향을 받았으며 자연과 물들의 비장성적인 생김새에 빠져되어 작품 안에 그리한 형태를 담으려고 한다.

작품에서 인물들은 주로 양성적인 외모에 부분적으로 옷을 입거나, 아래 옷 없이 가상의 현실 세계를 떠다닌다. 이러한 소녀가 떠나는 행상은 창조에 대한 갈망과 자유지향적인 세계관을 보여준다. 10월 2일부터 11월 22일까지. ☎